

“내 아이 죽음 10년 지났는데…학교현장은 바뀐게 없어”

대구에서 만난 ‘학폭 극단 선택’ 고 권승민 군 어머니 임지영씨

2012년 ‘권승민법’ 제정됐지만 피해자 중심 대책 제대로 없어
주변 학생들 폭력 방관 안타까워…교사들이 더 관심 가졌으면
광주 피해자 유족들, 아들의 죽음 잊혀지기 전에 억울함 풀어야

“제 아이 죽음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달리 바뀐 건 별로 없죠.”

10년 전인 지난 2011년 12월 20일, 같은 학교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권군이 남긴 유서 전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엘리베이터에 쭈그려 앉아 눈물을 닦는 CCTV 카메라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촉발됐다.

권군 어머니 임씨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광주일보와의 2시간 가까운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다 졸업하는 것, 그 뿐”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는 없다”고 했다.

임씨는 최근 학교폭력에 고통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광주지역 고교생 A군의 사연을 접하고 “대한민국에는 학교폭력을 끌어낼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광주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고등학생이 남긴 유서를 보니 우리 아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학생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지 (나는) 예상이 된다”고 했다. 해당 고교생이 세상을 등지기 전 남긴 유서를 통해 고마운 친구들의 실명을 적고 학교폭력으로 힘들었던 내용을 기록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그는 “조심스럽지만 유족들은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아들의 죽음이 세상에 잊혀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임씨의 아들 권군은 2011년 12월 금품갈취·폭행 등 동급생들의 상습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권군이 남긴 유서 전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엘리베이터에 쭈그려 앉아 눈물을 닦는 CCTV 카메라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촉발됐다.

정부는 권군 사건을 계기로 곧바로 학교폭력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이듬해인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을 바꿨다. 이른바 ‘권승민법’이다. 또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0년이 흐르면서 학교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임씨에게 10년 전 아들의 죽음으로 국가적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된 이후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는 지 물었다.

임씨는 “승민이 죽음 이후 범정부차원 대책이라며 법안도 바뀌고 각종 제도도 무수히 쏟아졌다”면서 “WEE클래스,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새로 생겨난 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의 중심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하고, 모든 절차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임씨 지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임씨가 학교폭력 사건의 진행 과정을 비유한 말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고 졸



업하는 것. 그것 뿐”이라며 “그런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할 때에는 임씨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임씨는 “가해 학생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다시 돌아와 또래 사회 안에서 한 계단 올라서고, 피해자는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기형적인 현주소”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아이들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모습만을 지켜봐왔다, 피해자들은 맛도 못보지 못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학생들도 학교폭력을 묵인하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임씨 얘기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끝내려고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12. 2. 6.

국무총리 김 황 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연말
불과도 같은 어린 학생들이 선택한 죽음이
지금도 세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서 지난 2011년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권승민 군의 어머니 임지영(57)씨가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왼쪽). 승민군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 중 일부. /대구=정병호 기자 jusbh@

임씨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내놓은 ‘여섯개의 폭력’이라는 책을 통해 “교사들이 잘해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작은 사건이라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안된다”고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임씨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개선도 주문했다. 학생들이 관심조차 없는 일회성 시청각 교육 대신, 역할놀이 등 정규 수업을 통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또래 학생을 괴롭히는 비인간적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김민석·정병호 기자 mskim@

광산경찰 ‘광주 학폭 비극’ 강제 수사 착수

학폭 뒷받침할 학생들 증언 확보
가해자 지목 학생 등 소환 방침

경찰이 또래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

1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7일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A군이 다녔던 고교 2학년 학생 350명 중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A군의 유서와 괴롭힘 동영상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또래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들 증언을 토대로 A군 유서에 나오는 여러 차례의 폭력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교실 내 괴롭힘 동영상에 나오는 가해 학생 5명과 또다른 학폭 피해 가담자들에 대한 학생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12일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목격한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소환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중 일부는 전수조사 당시에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가 하면, 증거가 될만한 SNS상 메모 등을 지우고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과 관련, “이들 학생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중인 점을 들어 학생들 전수 설문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몇 명의 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는지, 소환 조사할 학생들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학교폭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유서까지 갖고 찾아온 유족들에게 “증거가 부족하니 더 가져오라”며 돌려보낼 정도로 소극적 수사 행태를 보인다. 교육계 등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도 수사진행 여부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를 놓고 뒷말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일부 또래 학생들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주 전수조사 결과와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및 피해자실 목격했다는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성추행 의혹’ 양향자 의원 보좌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양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1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 등)로 양향자 의원 광주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양 의원 전직으로 양 의원 당선 이후 광주지역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 목사에게 날린 재판장의 일침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 다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를 향해 재판장이 일침을 날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6차례에 걸쳐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교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에 배반을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재판장은 형량 결정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쳐라’고 답하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언급했다.

재판장은 예수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이들이 대면예배만 올바른 종교 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예배를 강행,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공공 안전에 위협에 처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 목사 등의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이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A 목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교회 전도사인 B(5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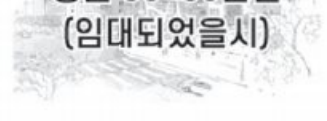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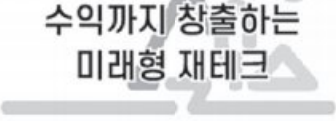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